



군종주보

2017년 11월 19일(제850호)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에게 주어진 달렌트

+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렌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복음은 지난 주의 복음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지난주의 복음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하고 말씀하시며 항상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에 대한 해답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달렌트를 잘 활용하여 더 벌어들이는 두 종과 자신의 달렌트를 묻어 썩힌 종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달렌트를 묻어 둔 종은 그것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마치 부익부 빈익빈의 세태와도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혹은 지금도 금수저와 흙수저라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무기력해지는 풍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의 비유를 보며 ‘누구는 다섯 달렌트를, 누구는 두 달렌트를 주고, 왜 나는 한 달렌트만 주지? 그리고 한 달렌트만 쥐 놓고는 못 벌었다고 뭐라고 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앞부분에 보면 주인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렌트를 맡겼다고 나옵니다. 그 달렌트를 맡기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얼마만큼의 달렌트가 그 사람에게 적당한 양이며, 벌어들인 달렌트를 보고 성실하였는지, 묻어 두었는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달렌트의 크기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보다 내가 받은 달렌트에 감사하며 그 달렌트를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많은 결과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달렌트를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 결과는 모든 이들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잘 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하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 삶 안에서 그것을 키워 나아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주님께서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그 달렌트를 더 풍성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박상민(그레고리오) 신부
신신대(해군 직진시행부) 성당 주임

제 1 특 시 잠언 31,10-13.19-20.30-31

회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제 2 특 시 1테살 5,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마태 25,14-30<또는 25,14-15.19-21>

영 성 제 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진리를 살다

용서는 우리가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덕행이 아닙니다.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주님의 명에 따라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려고 결심합니다. 영성체는 개개인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킬 뿐 아니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친구들도 서로 일치시킵니다. 영성체를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깊이 일치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그 몸의 지체들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와도 원한을 품지 않고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또 형제와 같이 좋아 하겠다는 마음의 결의를 영성체 전에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전례에서는 전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서로 교환하던 평화의 인사를 주님의 기도와 영성체 사이에 행하게 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 평화의 인사를 영성체 전에 행하도록 다시 규정하여 세계 어디서나 이 평화의 인사가 신자들의 큰 기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분명히 표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3. 부속기도와 환호

교회는 초세기부터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는

영성체 예식

“악에서 구하소서.”를 확장한 별도의 기도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를 확장한 주님의 기도의 부가(첨가) 기도입니다. 사람은 영성체로 주님과 일치할지라도 다시금 악에 빠질 위험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평화를 누리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지상의 어디에선가 “우리 시대의 평화”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혼란과 죄에서 보호해 주십사는 간청도 마찬가지로 절박합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방향감각 상실과 이념의 혼란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진리와 정의,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계명을 왜곡시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속기도의 이 청원들은 폭넓은 현실성을 가집니다. 이 청원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관계됩니다.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이 찬사는 그리스도교의 “원(原) 기도”입니다. 이 찬사는 하느님 나라의 결정적 승리를 확신하는 원시 공동체의 확고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으며 묵시록의 환시에 나오는 찬양 외침과 같습니다. 대영광송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마침 찬양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홀로서기

이제 홀로서야 할 때입니다.

이 몸 어설프지만 이렇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젠 홀로 설 때입니다.

상화이야기

성모님의 탄생



이 그림의 주제는 성모님의 탄생이지만, 정작 성모님의 탄생 이야기는 왼쪽 아래의 침대에 안나 성인이 갓난 아기를 안고 계신 부분에 그려져 있다. 중앙 하단에는 유모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과 우측 아래에는 성모님의 아버지인 요아킴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은 이곳이 교회처럼 보이는 공간 속에 배치된 열린 공간이라는 것인데, 그림의 중앙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손에 손을 잡고 노래하고 있는 듯, 원을 그린 어린 천사들의 무리이다. 그 아래에는 향을 피우고 있는 천사가 정중앙에 보인다.

아기가 태어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공간처럼 보이는 공간과 기둥, 통로 공간은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창문은 고딕 양식으로 그려져,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교회와 성모님을 동일시하는 의미 중에서도, 신약과 구약이 함께 합쳐져(예수님의 탄생으로) 완성된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알브레히트 알토도르피(1480-1538)

1520년 作

패널 위 유화 140.7 X 130 cm

알테피나코테크 미술관, 독일 뮌헨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3주일: 상요셉(1군단) 윤원식 신부
<p>◆ 교구장 동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11월 19일(주일) - 국장회의 때: 11월 21일(화) 11:00, 교구청 회의실 	<p>◆ 수녀연수</p> <p> 때: 11월 21일(화)-23일(목) 곳: 안양, 아론의 집</p>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